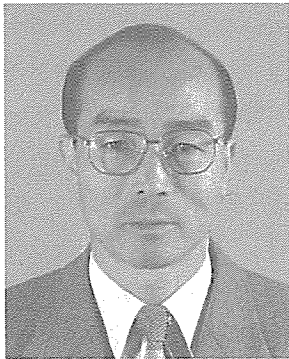


영광의 열매

제34회 대한민국과학기술상/기술상 수상자

삼성전자 千敬俊 통신연구소장 국내 최초 카폰·팩시밀리 개발



“수많은 후배들과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제34회 대한민국과학기술상 기술상을 수상한 천경준 삼성전자 부

사장이 소박하게 수상소감을 피력했다.

지난 83년 국내 최초로 전자식 카폰을 개발하고, 85년에는 국내 최초로 팩시밀리를 국산화하는데 성공한 그는 다시 이듬해인 86년부터는 휴대폰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휴대폰 개발에는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로서의 자존심을 걸었었다.”고 털어놓는 그의 말처럼 당시는 모토로라가 휴대폰의 대명사

로 여겨질 만큼 국내 시장의 80~90%를 점유하고 있던 때였다.

그러나 94년 ‘Anycall’ 개발에 성공하면서 드디어 월간 판매량에서 모토로라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모토로라를 이겼다는 사실 뿐 아니라 품질과 가격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에게 국산제품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의 기술력을 세계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 때문에 더욱 기뻐합니다.” 처음에는 벽돌크기만 하던 이동통신 단말기가 90년대 들어 300g 이하의 소경량 제품으로 생산되다가, 서구에 비해 산악이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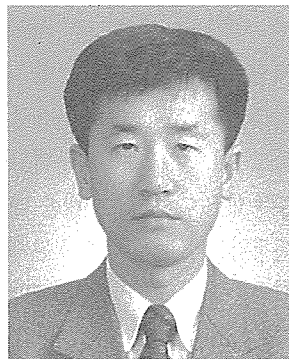
은 국내 지형을 고려하여 이동통신의 가장 큰 난제인 RF(Radio Frequency) 및 안테나 기술을 중점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제품 경쟁력을 획득한 아날로그 휴대폰 개발로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쾌거는 지난 96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되어 CDMA 방식의 시스템 및 단말기 개발로 더욱 주목을 받았다.

20여년 동안 이동통신분야에서 제품 개발과 상용화에 앞장서 온 천경준부사장은 지금까지 축적된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시장을 개척하고 넓혀나갈 계획으로 몹시 바쁘다.

영광의 열매

제34회 대한민국과학기술상/기능상 수상

포항제철 李龍宰 공정품질주임 표면처리 고질적 문제점 해결



기능상은 현장경험과 전문기술지식을 바탕으로 조업요소 기술을 정립하고 표

준화하는 데 애써온 포항제철소 냉연부 공정품질주임인 이용재씨가 영예를 안았다. 이용재주임은 현장 조업경험을 활용, 조업요소 기술들을 정립함으로써 표면처리분야에 있어 다른 나라는 물론 국내의 연구소에 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다수 해결해 왔다.

그가 정립한 최첨단 표면

처리제품인 유기피복강판 제조시 조업기준과 고가의 수입 유기피복강판 용액을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점들을 발체, 분석, 개선한 결과는, 이미 우리나라 표면후처리 기술력 향상 뿐 아니라 생산원가를 절감시키는 효과와 연간 3백50억원에 달하는 수입대체효과로 나타났다.

자동차용 고급강인 Zn-Ni도금 합금작업에 있어서는 Ni함량 예측 모델과 Chip 방지 조업기준을 개발하여, 도금층 중 Ni함량 관리가 어렵고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Chip을 수작업

으로 제거해야 하는 가장 커다란 2가지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

또한 가전 및 자동차용 고급 외판재인 수지피복강판에서 가장 중요한 수지부착량 관리의 어려움을 완벽하게 해결해 낼 최적의 조업조건을 도출하고, 수지부착량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원통형 전기도금 설비의 구조적 특성상 발생될 수 밖에 없었던 만성 결함인 줄무늬(Band Mark)를 각종 조업요소기술 개발을 통하여 완전히 없애는 쾌거를 올리기도 했다.

제34회 대한민국과학기술상/진흥상 수상자

전북대 吳鎭坤 교수 대학에 최초로 과학학과 개설



과학사회학, 과학정책 등 과학학분야의 연구와 보급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 받은 오진곤교수는 “학자로서 해야 할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며, ‘한국과학사학회’와 ‘전파과학사’ 등 먼저 주변에서 지지해 주고 추천해 준 여러분에 대한 감사의 말을 잊지 않았다.

연구와 저술활동은 학자로서 당연한 일이며, 단지 이것들을 발표하고 널리 알

올해 대한민국과학기술상 진흥상 수상의 영예는 오진곤 전북대학교 교수에게 돌아갔다. 과학사, 과학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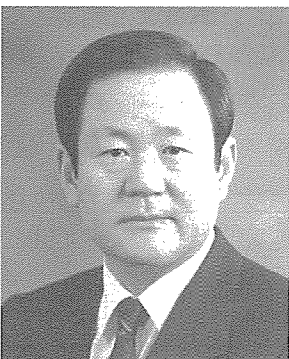
릴 기회가 주어졌던 것에 감사한다는 오진곤교수는 교양과학서의 번역 출판을 비롯하여 과학과 기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깊이있는 통찰을 담은 「과학과 사회」 등 학술서적을 잇달아 출간할 만큼 왕성한 연구활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과 사회」는 지난 94년 ‘한국과학기술 도서상’을 받고 한겨레신문의 ‘10대 도서’에 선정된 우수도서.

최근 오진곤교수는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서울대학교와 포항공과대학교에 지부를 가진 전국적인 규모의 ‘과학문화연구센터’ 설립을 추진, 현재 통합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에서 후원하는 ‘과학문화연구센터’는 과학문화에 대한 기초연구를 진행하는 곳이다. 한편 오진곤교수는 과학학의 교육과 연구를 위해 지난 95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전북대학교 학부과정에 과학학과를 설치하고, 이어 99년에는 대학원 석사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 과학이 ‘어려운 것’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그 간격을 좁히는 데 일조를 하고 싶다”며 우리나라에 과학문화가 좀더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는 말로 인사를 대신했다.

제34회 대한민국과학기술상/진흥상 수상

大田廣域市 시민대상 12개 과학동호회 운영



은 ‘대전광역시’ (시장 : 홍선기/사진).

과학기술혁신 추진 전담체제를 확립하고, 과학기술혁신 인프라를 꾸준히 구축해 온 대전광역시는 98년에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지원 조례 및 동 조례시행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이어 99년에는 ‘대전광역시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다. 작년에는 대덕밸리 전담조직이 신설됐다. 한편 대전광역시는 세계

제34회 대한민국과학기술상 진흥상을 수상한 곳은 ‘첨단과학기술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과학도시연합(WTA)을 구성·운영하고 대덕연구단지와의 협력체제를 강화,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신기술의 개발과 보급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뒀다. 또 지난 96년부터 매년 ‘세계과학기술도시 국제심포지엄’과 ‘세계과학기술도시 시장회의’와 ‘세계과학도시연합 창립 총회’를 비롯하여 ‘제1회 세계과학도시연합 대전테크노마트’와 ‘제2차 세계과학도시연합 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오고 있다. 이외에 ‘세계정보보호올림페어’ 같은 국제적인 행사를 지원하고,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연구단지 연구원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일도 한

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들은 6개 대학 4백여개 업체가 참여한 ‘산·학·연 지역컨소시엄 사업’을 비롯한 ‘지역협력연구센터’와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 ‘두뇌한국 사업’ 등으로 실현되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과학마인드 제고’라는 취지 아래 12개 과학동호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전문대도 갖추고 있다. 과학에 대한 대전광역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활동들이 바로 작년 한해에만 ‘대전 사이언스페스티벌’ ‘대전 발명특허박람회’ ‘벤처군수마트2000’ 같은 각종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뤘던 원동력과 저력일 것이다. ⑤